

11월 미국 금리동결과 향후 전망

미국 금리동결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반응

- 미국 연방준비제도(Fed)는 11월 1~2일(현지시간)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.25~0.50%로 동결함
 - 최근 2016.3분기 미국 GDP성장률(속보치)이 2.9%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등 주요 경제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주 미국 대통령 선거(현지시간 11/8)가 금리동결에 영향
 - FOMC 위원 10명 중 2명은 0.25%p 인상에 찬성
- 금융시장 상황(뉴욕 오후 6시 기준)
 - 금리동결 발표 이후 다우지수 및 미국 10년물 국채수익률 하락
 - 달러는 금리동결 발표 이후 약세
 - 주가(종가 기준) : 다우 0.4% 하락, S&P 0.7% 하락
EURO STOXX 1.4% 하락
 - 10년물 국채(미국) : 1.827% → 1.803%
 - 달러/유로 : 1.1055 → 1.1098달러
 - 엔/달러 : 104.15 → 103.36엔
 - 원화 NDF(1개월) : 1146.65 → 1145.65원

미국 금리인상 시기 전망

- Janet Yellen 연준 의장은 이번 성명서를 통해서 금리인상의 여건은 계속 강화되었으나 “(경제)진전의 일부 추가적인(some further) 증거를 기다리기로 결정했다”고 언급
 - “일부 추가적인(some further)”이라는 단어를 통해 금리인상을 위한 경제 진전의 기준이 상당히 충족되었음을 시사

- 고용 및 소비 등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도 낙관적이었으며 인플레이션 역시 목표치인 2%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다소 상승하였다고 언급

□ 금융시장에서는 최근 경제지표의 개선 등을 토대로 금리인상 시기를 12월로 전망하는 시각이 우세함

* 금년도 향후 FOMC 회의 일정 : 12.13~14일

- 미국 연방기금금리 선물거래로 산출한 12월 미국금리 인상확률은 금리 동결 발표 직후 68%에서 78%로 상승
- Bloomberg(11.3일)는 Fed가 금리인상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(set up moves)고 보도
- Northern Trust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Carl Tannenbaum은 “다가오는 선거 때문에 지금은 금리를 인상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었다”고 하면서 “12월은 금리를 인상하기에 좀 더 적절한(suitable) 시간”이라고 언급(Washington Post, 11.3일)

□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Trump가 당선되면 금융시장 혼란(a sell-off financial markets) 발생으로 차기 금리인상 시기는 불확실하다는 시각도 있음

- Capital Economics의 Paul Ashworth는 “트럼프의 깜짝 승리는 주식 시장의 급격한 침체를 야기하기 때문에 Fed는 12월에도 금리 인상을 보류할 수 있다”고 하면서 금리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힘(Financial Times, 11.3일)
- MFR의 이코노미스트인 Joshua Shapiro는 “이번 성명서에는 그 어떤 명백한 약속도 없었다”며 예상보다 덜 매파적(less hawkish)이었다고 언급(Financial Times, 11.3일)